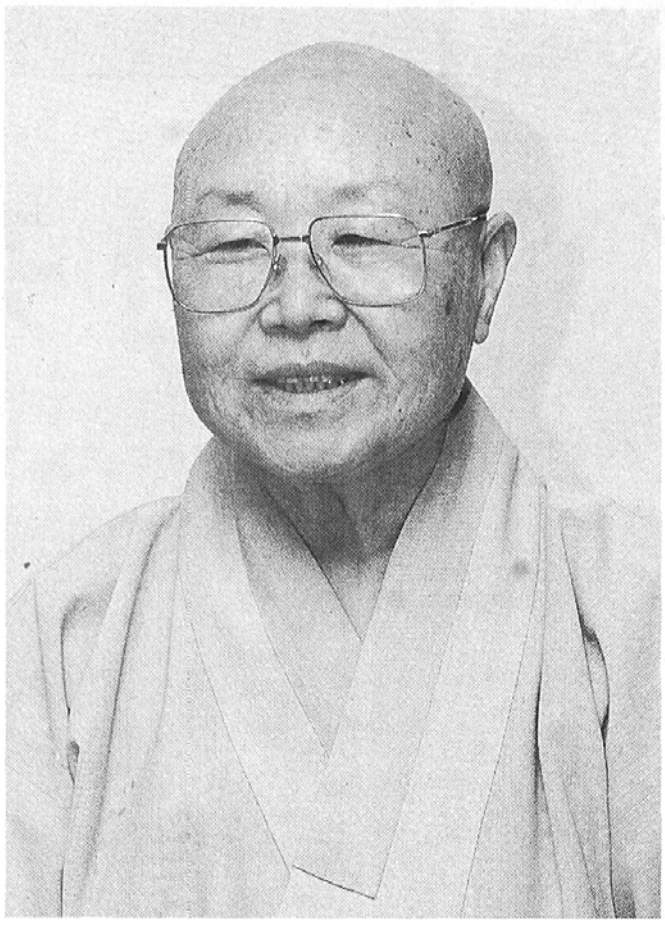
수요인터뷰

전국 비구니회 5대회장에 선출된

광 우 스님



지난 18일 목동청소년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 비구니회 총회는 신임회장에 광우스님(목동청소년회관 관장)을 선출했다. 이날 스님은 117표를 얻어 제5대 회장에 선출됐지만 회장직을 고사하고 있다. 비구니회는 광우스님의 고사로 인해 오는 26일 회장단 및 운영위원·지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회장 선출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약 력

- 1925년 경북 선산 生
- 1938년 직지사에서 성문(性文)스님을 은사로 득도
- 상주 남장사 관음강원 대교과 졸
- 1956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
- 1977년 운문사 강원장
- 현재 정각사 주지, 목동청소년회관 관장

"첨단 시대 맞는 교육·전법 펴야죠"

힘모아 회관 완공…지역 사회의 '慈母' 돼야

—계속 고사를 하시니만큼 '축하드립니다'란 말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하시겠다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나이도 많고 (71세), 다른 계획도 있어서 총회전부터 추천도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번 얘기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비구니회의 위상도 높아졌고 비구니들의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만큼 70세가 넘은 사람을 회장시키지 말고 젊은 사람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원은 4월말 현재 2천3백83명이지요. 전국에 비구니스님들이 총 4천8백여명이라니 전 비구니의 절반이 우리 회원이라 생각됩니다.

—비구니회 전신인 우담바라회를 만드신 발기인중 한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24년전인 지난 1971년 우담바라회가 창립될 때 사무처장을 맡아 실무를 보았지요.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비구니계가 활발하지 못해 학교다니는 비구니스님은 찾아보기조차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비구니들을 단합시켜 교육도 시키고 종단을 위해 무언가 해보자는 취지아래 우담바라회가 창립된 것이지요. 포교에 있어서는 비구니가 훨씬 유리합니다.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마하파사파티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에게 훌륭한 대법사가 되고난 후 많은 중생을 제도하라는 수기를 주고 있습니다. 법사로서 중생교화하는데 비구니가 더욱 유리하다는 걸 부처님께서도 확신하신 것이지요.

요즘은 첨단시대인 만큼 부처님 법을 펼 수 있는 포교방편이 다양합니다. 비구니들이 열심히 공부해 포교일선에 나서서 전법을 열심히 해야하겠지요.

—목동청소년회관에 이어 비구니회에서 지난 3월 17일자로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셨지요. 오는 6월 1일 개관하십니까.

▲직원도 공개채용하고 개관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규 회원이 되려는 구민들이 정수를 넘어 걱정입니다. 3천명이 한도인데 지금 1만8천명을 넘어섰어요. 체육센터를 잘 운영해 목동청소년회관에 이어 알찬 포교센터로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비구니회원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담바라회에서 비구니회로 이름을 바꾼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는 데요. 비구니회의 숙원사업인 비구니회관 건립이 올해 본격화할 예정이라는데 건립추진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대지매입에 지금까지 2십4억2천여만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10억3천여만원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올해 시공에 들어가 내년 8월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건립비 총액으로 70억원을 잡고 있는데 재원마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2천7백평으로 지상 1층은 대강당 및 복지시설 2층에는 회의실 도서관 자료실 사무실 3층은 교육실 선방 연구실 4층은 기숙사로 5층은 만분의 부처님이 모셔지는 법당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비구니회관은 비구니들의 교육과 포교의 중추기관으로서 마음놓고 수행과 정진을 할 수 있는 곳임은 물론 사회복지센터로 중생구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회관은 전국 비구니들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어야만 예정대로 순조롭게 건립될 것입니다.

회관이 완공되면 전둔적이고도 다양한 포교 교육을 실시해 포교사를 양성 전국의 비구니 사찰만이라도 의무적으로 포교사를 파견하고자 합니다.

비구니스님들의 잠재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강원의 강주를 맡고 계신, 즉 문하생들을 많이 배출한 분이 추대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각처에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제자들의 호응이 클 것이고 따라서 비구니회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구니회 임원진에서 스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강력히 권하고 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만큼 스님께서 계속 고사하시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비구니회가 공전되지나 않을까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5월18일) 총회에서 회의실을 꽉채운 4백50여 비구니스님들을 보고 비구니스님들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비구니회 회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서울, 대구, 부산 등 지역별로 그리고 '승가대학까지 15개 지회가 있고 총 중앙회장단과 운영위원, 지회장, 총회의원들이 모여 의논해 나이도 젊고 의욕있는 분을 다시 선출했으면 합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어떤 분이 회장직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팔경계 논란' 해결 기대

—총회에서 총무원장스님도 언급하신 문제인 '비구니 팔경계가 비불설이다'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 비구니계에서 적극 밝힐 용의는 있으신지요.

▲율원에서 징계 운운하는 것 보다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해 논술적으로 근거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학문적으로 논란이 이는 것은 학문적으로 풀어가야겠지요. 종단에서도 비구니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비구니 팔경계'논란도 종단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펴주어 좋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새 집행부에 대해 비구니스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게 잘 될것 같습니다.

이경숙 기자

나의 수행일기

김철회 〈한국 인성개발원장〉

상담·문서포교 통해 내 삶도 '청정'

산사서 고시공부하다 부처님 진리와 첫 인연

나는 학창시절에 장차 법관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부할 곳을 찾아 다니다가 조용한 산사를 찾게된 것인데, 그 인연으로 불교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물론 근본적인 동기는 부모님이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나도 성장과정에서 그 영향을 받아 자연히 불교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산사에서 스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불교경전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는 부처님의 정법인 인연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불법을 만난 후부터 생활방식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하여 언젠가부터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을 연기적사고(緣起的思考)에 의하여 처리하는 습관이 배게 되었다.

내가 불교에 입문한지도 어언 30년이 되었다. 그 긴 세월 속에 한국불교청년회장을 역임했고, 1974년에는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신도회장에 취임함으로써 불교와 더욱 깊은 인연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당시 태고종에서는 용태영 변호사(수도변호사회 회장)를 전국신도회장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용변호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신 나를 소개한 것이 인연이 된 것이다.

그때부터 용태영 변호사와의 인연은 이어졌다. 1973년 3월24일 당시 수도변호사회 회장이었던 용변호사는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성취를 초발심으로 서울고법 특별부에 석가탄신일 공휴일 확인등의 청구소송을 낸 일이 있었는데, 1975년 2월15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다. 한때는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되었을 때 나도 함께 밤을 지새우며 고통을 나누었던 그 인연이 추억으로 떠오른다. 이 나라 불교 사상(史上) 천추만대를 이어갈 불후의 위업을 남기신 용변호사의 공적을 잊을 수가 없다. 사월초파일을 맞을 때마다 그때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내가 태고종 전국신도회장직을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보람으로 느꼈던 것은 1984년 11월 20일을 맞아 태고종 전국신도회에서 최초로 창립한 보건공제회의 초대이사장직에 취임하여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냈던 일이다. 지금은 태고종 상조회와 태고종 신용협동조합으로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고 크게 보람을 느끼며 모두가 부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드린다.

부처님 법 안에서 오래 살다보니 부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큰 짐들을 지어주셨다. 태고종에서는 중앙종회의원직과 종립대학인 동방불교대학 교수직을, 범불교적으로는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의 공동대표 회장 그리고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에는 지도법사, 한국불교 재가회의에서는 이사직을 맡겨주셨다. 분수에 넘치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리고 문서포교의 일환으로 월간 〈부처님의 말씀〉을 발행하고 있으며, 도서출판 시방문화원이라는 조그마한 출판사도 갖고 있다. 어렵지만 보람을 느낀다.

나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또하나의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내가 태고종과 인연된 이래 태고종의 종조이시며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사상체계나 교육이념이 체계화되어있는 문헌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태고스님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태고보우국사의 불교교육론 연구'라는 논문으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크게 보람을 느낀다.

지금까지 불교이야기로만 일관된 것 같다. 내가 지금 원장으로 있는 한국 인성개발원에서는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는 카운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사상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카운슬러는 없었다고 본다. 나는 불교적 성향을 가지고 연기적사고(緣起的思考)에 의하여 인과율(因果律)에 적용하는 상담과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나는 늘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처님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마음 속으로 굳게 다짐해 본다.

봉축

불기 2539년 부처님오신날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임원진

명예회장 월탄 스님

회 장 혜총 스님 기획실장 동성 스님
수석부회장 원성 스님 사무총장 지원 스님
부 회 장 장산 스님 총무부장 김광태 법사
일우 스님 섭외부장 이정 법사
지홍 스님 조직부장 도진 스님
삼지 스님 재무부장 종림 스님
감 사 정덕 스님 문화부장 상덕 스님
일면 스님 사무국장 선종 법사

특별분과위원회

장학포상분과위원회위원장 월탄 스님
종책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보광 스님
언론통일인권분과위원회위원장 진관 스님
포교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성열 스님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시현 스님
재가법사분과위원회위원장 송병욱 법사
동국대학중흥위원회위원장 원성 스님
부위원장 법장 스님
간 사 법안 스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신문로2가 1-38 내자원B/D 6층
전화 : (02)723-5264 / FAX:(02)736-6205

◐ 한문과 불교공부를 함께 ◑

에불문 · 반야심경 · 천수경
금강경 · 부모은중경 · 아미타경
관세음보살보문품 · 보현행원품

불교경전 속의 한자만 모은

佛教千字文

감 수 : 백 운
편저자 : 덕 진
쓰 기 : 박한숙

여덟 종류의 불교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기본 교재 역할과
사경의 의미까지 포함한
불자 필수 교본!!

쓰기(사경)편/ 3,000원
자전편(자전 · 용어풀이, 중요귀절 해석편)/ 2,500원

우리출판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 313-5047 · 5056 / FAX 393-9696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하여 절구통으로 방아를 찧어서 먹던 쌀과 같이 원하는 분도로 즉석 정미한 저분도 쌀을 먹으면 됩니다.

절구통표 米壽米 — 현미저분도쌀

1. 현미의 문제점 : ① 먹기 어렵다.
② 영양섭취율이 떨어진다.
③ 묵은 현미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2. 왜냐하면 상인들이 현미의 먹기 어려운점을 악용하여 묵은 벼로 현미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먹기어려운 현미를 그냥 먹으라는 것은 먹지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4. 먹기엔 백미처럼 부드럽게 먹고 영양은 현미처럼 풍부하게 먹을수 있다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2분도 현미(주식으로)+미강가루(없음)=현미(먹기 어렵다.)
3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쉽다.)
4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더쉽다.)
5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조금 더쉽다.)
6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아주 더쉽다.)

5. 변비에 특효인 미강가루는 거치른 쌀겨가 아니고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말로 생산하여 쌀과 함께 드립니다.
6. 회원이 원하는 분도별 쌀을 주문받아 생산하여 배달하는 것이므로 신선도, 맛, 영양가에서 뛰어납니다.
7. 회원의 집까지 배달됩니다.(20kg이상) 대리점모집중
8. 원하는 분도별 쌀 kg단가는 1,950원 입니다.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 231-5421~2, 235-1846~7
正米食(쌀을 바르게 먹음)이면 米壽宴(여든여덟살이 되는 해에 베푸는 잔치)이다.

중국구화산 신라승 肉身佛

지장보살

地藏菩薩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

중국 구화산 지장성지 현지 촬영 완성!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이었습니다.
천이백년 동안 단 한번도 꺼지지 않은
김지장육신보전의 향불! 석가모니불로부터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 구제를
위해 삼생을 나투시는 무불시대의 메시아!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을 아십니까?

제1부 :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
제2부 : 꺼지지 않는 김지장 깃발

비디오 구입문의 : 02-233-2830

우편판매 온라인 구좌번호 예금주
외환은행 : 139-13-05983-7 김행수
우 체 국 : 011213-0068986 김행수